

진도 최초 유기인증...100일 동안 해풍 맞은 시래기 재배



안전먹거리 지킴이...유기농 명인을 만나다

(25·完)진도 주현 유기농 '김주현 명인'

유기농 1세대 부친 이어 가업 승계
단순전처리시설 이용 가공식품 판매
마늘유 함유 제품 사용 총해방제 눈길



진도군 군내면 연산리에서 '주현 유기농'을 운영하는 김주현 전남도 명인과 유기농업 1세대인 그의 부친 김종복을, 그와 부친이 농장 내 소나무숲에 제작한 시래기 덕장(왼쪽).



“부모에게 전수 받은 친환경 농업을 많은 청년들에게 전수시켜 우리땅과 자연을 지키고 싶습니다.”

진도군 군내면 연산리에서 '주현 유기농'을 운영하는 김주현(51) 전남도 유기농 명인이 친환경 농업의 중요성을 이같이 강조했다.

주현 유기농 농장의 역사는 김 명인의 부친 김종복옹이 지난 1984년 진도에 내려와 유기농으로 수도작과 월동무를 생산해 시작됐다. 김종복옹은故원경선 대표의 풀무원과 정농회에서 활동하던 유기농 1세대다.

그러던 지난 2006년 가업을 승계 받아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어 명인의 농장은 오랜 기간의 역사를 자랑한다.

현재는 3만594㎡(약9천평)의 땅에서 노지재배로 월동무를 생산하고 울금, 기장 등 품목도 유기재배 하며 한살림 등과 같은 친환경 업체와 전량 계약재배를 통해 거래하고 있다.

명인의 월동무는 추운 겨울 눈, 서리, 햇볕 등을 맞고 수확할 열기와 녹기를 반복해 월동무 특유의 아삭한 맛이 일품이며 그와 부친이 소나무 숲에 직접 제작한 시래기 덕장에서 이후 100일 동안 해풍을 맞혀 시래기를 만든다.

또한 소중한 농산물이 버려지지 않고 월동무 전체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이기 위해 최근 저온저장고 시설, 냉동저장고 시설, 그리고 단순가공전처리시설도 구축해 무말랭이, 울금 말랭이, 무시래기 등도 가공해 판매한다.

시래기는 식이섬유가 풍부한 대표적 식품으로 체내의 각종 노폐물 배출은 물론 포만감, 장내 수분

을 흡수해 변비예방과 함께 장내 노폐물 배출을 도와 대장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주현 유기농 농장은 진도군 최초의 유기농 인증 농장이며 유기농인증제가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그의 부친이 유기농장으로 운영해 그만큼 흙이 건강하고 화학비료가 전무한 땅이다.

김 명인은 이러한 땅을 지속유지하기 위해 수십년간 고급유기질 원료를 특허미생물로 발효시킨 흙살림의 부속유기질비료를 사용하고 마늘유가 함유된 흙살림 제품을 사용해 총해방제를 하고 있다.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2021년 '전남도

유기농 명인' 제2호로 지정됐다.

진도군 최초 유기농 인증, 유기농 명인 지정 등 광목함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명인이지만 농촌의 인력 부족을 몸소 느끼는 시간을 보내야만 했다.

계절근로자가 정착되기 이전까지는 인력소를 전전하며 수확할 많은 인력을 구하기 위해 부당한 노력을 해야 했다.

2세 농업인으로 진도의 친환경 농업에 앞장서고 있는 김 명인의 향후 계획은 좋은 땅을 잘 관리해 유기농업을 꾸준히 선도해 바른 먹거리를 꾸준히 생산하는 것이다.

김주현 명인은 “고령화로 인해 농촌에 사람이

떠나가고 이상기후 등의 어려움으로 2세 농업인을 하려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며 “그 결과 부모가 밭 흘려 일군 좋은 땅이 관행농업으로 넘어가 많이 안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이유로 필자에도 유기농이력제가 적용돼 한 땅이 얼마나 오랜기간 단절없이 유기농을 이어 왔는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생각한다”며 “주변 청년들에게 유기농업을 권유해 농촌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는 주변에 연로해 내놓는 유기농들을 매입·임대 관리해 바른 먹거리를 생산하면 사람도 살리고 사회도 건강해진다는 것을 꾸준히 알리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안태호 기자

무농약·무비료 친환경 산마늘 산업 확대 기여

道, 6월 임업인 강창원 임업후계자
순천 외서면서 年 1t 친환경 재배



전남도는 6월 '이달의 임업인'으로 순천 외서면에서 산마늘을 생산하는 임업후계자 강창원(사진)씨를 선정했다.

강창원씨는 2012년부터 약 10ha 면적에 음나무, 녹차 등 다양한 작물을 꾸준히 재배하고 있다. 2022년 산림복합경영단지 공모사업에 선정돼 무농약·무비료 방식의 친환경 산마늘 재배를 본격 시작했다.

현재 산마늘을 포함한 임산물 전반에서 연간 약 7천만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으며 산마늘 생산량도 1t에 달해 지난해 전남 전체 산마늘 생산량(3.6t)의 약 30%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 산마늘 산업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

강창원씨는 “무농약·무비료로 친환경 산마늘 재배를 확대해 소비자가 안전하고 신선하게 산마늘을 먹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마늘은 흔히 '명이나물'이라고도 불린다. 특유의 마늘 향과 아삭한 식감, 풍부한 섬유질로 고기나 생선과 잘 어울리는 고급 쌈 채소로 인기를 끌고 있으며 항균·항암 작용, 피로회복이나 소화 기능 촉진 등 건강 가능성이 뛰어난 웰빙 식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박종필 환경산림국장은 “강창원씨는 전남 임업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모범적인 사례”라며

“지역 우수 임산물을 더욱 홍보해 소비자가 신선한 임산물을 안전하게 섭취하도록 상품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임업인들에게 힘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남지역 임산물 총생산액은 9천779억원이다. 이 중 전국 1위 생산량을 차지하는 대표 임산물로 취나물, 산수유, 황칠나무, 시호, 조경수, 잔디, 건표고, 고로쇠 수액 등이 있다.

/양서원 기자

광주시, 농민공익수당 한 달 앞당겨 지급

선불카드로 농가당 60만원...8천400가구
30일까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서 수령

광주시가 농가 경영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민공익수당'을 지난해 대비 1개월 앞당겨 지급한다.

광주시는 2025년 농민공익수당 선불카드를 오는 30일까지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부한다.

올해는 농민기를 앞두고 농가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지급 시기를 지난해보다 1개월 앞당겼다.

'농민공익수당'은 2024년 1월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시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 농장)를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전년도에 기본직접지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족·근속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에게 지급된다.

광주시는 지난 3월24일부터 4월18일까지 신

청을 받아 자격요건 검증을 거쳐 최종 8천400가구를 농민공익수당 지급 대상으로 확정했다.

지급 대상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 오는 30일까지 농민공익수당 신청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급 금액은 농가당 연 60만원이며 광주선불카드를 지급된다. 수당 사용 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2025년부터 지급되는 농민공익수당의 사용 기한은 1년으로 당해 연도 12월31일까지 사용해야 한다.

광주시는 농민공익수당의 조기 사용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분실·미사용 등으로 카드에 남아있는 자투리 잔액을 모아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내년부터 농민공익수당 카드 사용 기한을 1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남택송 농업동물정책과장은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자격 확인 및 검증 절차를 신속히 마쳐 지난해보다 한 달 빨리 지급하고 있다”며 “농민공익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가 경영 안정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 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볼거리와 먹거리 모두 풍부한 정남진 장흥토요시장

◎ 장서는 날 ◎
매주 토요일 / 2, 7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장흥군 광고문의 : 062)650-2099